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7, pp.425-434
<https://doi.org/10.29212/mh.2025..137.42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길 위에서 찾는 군사역사의 흔적

박동찬, 윤시원 집필

『전적지 답사 총서 | 서울 동부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5.

김경록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I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전쟁은 인류의 삶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다양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쟁은 시대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진다. 한반도의 한국사에서 전쟁은 시대별로 역사사건으로 발생하여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절망과 아픔의 경험을 남겼다. 사람들은 전쟁의 경험을 기억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전승하여 새로운 시대로 발전시켰다.

전쟁은 반복적인 성격을 가진다. 국가의 방위수준이 낮아지면 전쟁의 위협이 높고, 전쟁의 피해와 결과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친다. 전근대에 발생한 전쟁의 공간은 근·현대 전쟁의 공간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에 군사요충지가 6·25전쟁기 군사요충지이자 주요 전적지가 되는 것과 같이 한국의 군사역사에

서 전쟁의 전적지는 시대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런 주요 전적지를 답사하면서 역사적 맥락을 참고할 수 있는 답사 안내서가 현재까지 없었다. 특히 전문 연구자에 의해 집필되어 그 내용을 믿고 볼 수 있는 권위있는 답사안내서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현실을 극복할만한 의미있는 답사안내서가 출판되었다.

군사편찬연구소는 2025년 『전적지 답사 총서 I -서울 동부권-』를 편찬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군사편찬연구소는 지금 우리가 삶을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있었던 비극의 역사를 배우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를 독자와 함께 갖고자 했다. 6·25전쟁기 전사연구를 목적으로 1951년 창설된 군사편찬연구소는 역대 군사사와 함께 6·25전쟁사 연구에 탁월한 성과를 도출하여 국내외 군사사 연구발전 및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 동안 방대하게 축적된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 성과와 내용이 본서의 중심이 되었다. 그 동안 군사편찬연구소는 방대한 연구성과를 학술적으로 도출하여 군사사 연구를 선도하였음에도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산물이 부족함을 인식했다. 따라서 연구성과의 대중화하여 공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서를 기획했다.

최근 전쟁과 군사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대중들이 현장감있는 설명과 안내를 욕하는 경향에도 두드러졌다. 평소 생활하고, 접하는 서울의 우리 동네에 어떠한 군사역사, 전쟁사의 흔적이 있는가를 궁금해 하는 시민들에게 군사사 연구기관으로 군사편찬연구소는 서울의 전적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기능하게 되었다.

군사편찬연구소는 1951년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방대한 연구성과와 전적지 답사의 경험을 응집하여 군사사, 전쟁사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전적지 답사 총서』를 기획

했다. 그 첫 결실이 『전적지 답사 총서 I -서울 동부지역-』 발간이었으며, 더불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전적지 답사 프로그램의 시행이었다.

II

본서는 프롤로그에서 한반도와 서울의 지리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6·25전쟁의 발발에서 서울방어작전의 경과를 잘 정리했다. 6·25전쟁의 군사역사 전적지를 특화하여 구성한 답사 총서에 필요한 정리이다. 별다른 서론이란 이름보다 프롤로그로 서울의 동부지역이 경험한 6·25전쟁을 개관한 점은 본서가 전적지 답사를 위한 대중서로 출판 목적을 설정한 고민을 잘 보여준다.

철저히 준비된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군은 부족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력군에 맞서 분전한 국군 제7사단처럼 전선에서 서울까지 방어하고자 했다. 국군은 축석령 전투, 백석천 전투 등으로 북한군을 방어하고자 했지만, 서울의 관문이었던 의정부가 중과부적으로 함락되자 수도 서울 최후의 방어선 창동과 미아리 고개를 방어하고자 했다.

국군은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 미아리지구전투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서울 동북부 방어전을 펼쳤다. 북한군의 야간 공격을 제20연대 1대대가 막았지만, 전열을 재정비한 북한군은 길음교를 통해 서울로 진입했다. 국군은 한강으로 철수하여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미군의 증원될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 했다. 북한군은 6월 29일 오후부터 한강 도하 준비를 시작했다. 6월 30일, 새벽부터 공세를 시작하여 정오 무렵 교두보를

확보하고 병력을 도하시켰다.

국군은 한강변에서 방어선을 구축했다가 말죽거리-우면산-남태령을 잇는 방어선에서 방어하다 과천, 판교, 시흥, 군포 등지로 철수하며 방어전을 지속했다. 국군이 한강 방어선에서 신사리-말죽거리 방면 방어전으로 5일간의 치열하게 전투했다. 그 결과, 북한군 주력이 한강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어 국군 주력의 수원 북쪽에서 섬멸하는 남침 계획에 차질이 초래되었다.

결국, 서울은 7월 30일 이후 북한군의 점령하에 놓였다. 서울을 국군과 유엔군이 수복하는 시기는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이후이다. 서울 탈환 작전에 미 해병 제1사단, 한국 해병대, 미 제7보병사단, 국군 제17연대 등이 참가했는데, 서울의 서쪽에서 중심부를 탈환하고, 서울 남쪽에서 신사리 새말나루에서 한강을 도강하여 서울 동부를 탈환했다. 국군은 9월 28일 서울을 완전히 탈환했다.

서울이 다시 주요 전투지로 등장한 시점은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의 참전을 시작으로 국군과 유엔군의 1·4후퇴이다.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지역에서 최후 공격작전 ‘크리스마스 공세’를 펼쳤지만, 실패하자 공산군의 대규모 공세에 직면하여 1951년 1월 3일, 전술상 서울 포기가 결정되었다. 2월 11일, 공산군의 제4차 공세를 좌절시킨 국군과 유엔군은 전장의 주도권을 되찾아 38선 확보를 위한 리퍼 작전(Operation Ripper)을 동시에 국군 제1사단이 3월 14일 정찰대를 서울에 투입한 다음 날 서울을 완전히 탈환했다. 이후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도 불구하고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사수하였다.

6·25전쟁의 전략목표에 서울은 점령과 탈환의 중심 공간이었다. 네 차례 주인이 바뀌는 전황 속에서 서울은 치열한 방어전, 시가전의 공간으로 많은 전적지를 남겼다. 국군과 북한군의 치열한 전투, 학도의용군과 유격대의 활약, 주요 방어전과 시가전 등의 전투의 상흔과 국군의 희생적인 전투의지가 반영된 전적지는 주요 군

사축선을 중심으로 전황을 보여주는 공간에 위치해 있다.

이상의 전황을 군사역사의 관점에서 현장감있게 식별하여 주요 전적지를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구성했다. 본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에필로그 : 서울 동부지역의 6·25전쟁

제1장 도봉·노원·강북·성북

- 워커 장군 전시 장소와 추모비
- 창동 방어선 전적지
- 미아리 방어선 전적지

제2장 종로·중구·동대문·중랑·정동·용산

- 진군 관련 주요 유적지
- 6·25전쟁과 선린상업학교
- 중랑교 인근의 전적지
- 용산 전쟁기념관
- 한강 인도교
- 서울대학교와 6·25전쟁
- 남산 일대의 전적지
- 학도의용군 기념물
- 현봉학 박사와 6·25전쟁
- 6·25전쟁 관련 기념물

제3장 광진·강동·송파·강남·서초

- 광진나루터
- 새말나루터
- 신사리-말죽거리 전투지
- 백마고지 3용사상과 콜터 장군 동상
- 남부의 학도의용군 기념물

본서는 서울 방어를 위한 의정부 방어선, 창동 방어선, 미아리 방어선, 한강 방어선, 신사리-말죽거리 방어 등으로 이어지는 공간성을 고려하여 서울 동부지역 전적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자연스럽게 시간의 전개과정 속에서 주요 전적지를 배치하면서 공간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효과적인 구성으로 도봉·노원·강북·성북지역, 종로·중구·동대문·중랑·정동·용산지역, 광진·강동·송파·강남·서초지역 등으로 섹션을 구분한 점이 절묘하다.

구체적인 전적지는 워커 장군 전시 장소와 추모비에서 출발한다. 다소 선후 관계는 차이가 있지만, 뒤이어 창동, 미아리로 이어지는 서울 방어전의 주요 전적지를 실감있게 설명한다. 전세가 매우 불리해지며, 서울의 중구 및 중동부의 주요 전적지가 2장에 상세히 설명된다. 본서가 시점으로 6·25전쟁만을 다루지 않는 고민의 흔적은 건군 관련 주요 유적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주요 전투지만 전적지로 식별한 것이 아니라 6·25전쟁과 관련된 포괄적인 전적지를 선정한 노력은 6·25전쟁과 선린상업학교, 용산전쟁기념관, 한강 인도교, 서울대학교와 6·25전쟁, 학도의용군 기념물, 현봉학 박사와 6·25전쟁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동부지역에 산재한 6·25전쟁 관련 기념물을 요령있게 잘 정리한 점도 돋보인다.

서울의 동부지역이지만, 흔히 강남으로 알려진 광진·강동·송파·강남·서초구에 전쟁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고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것이다. 본서는 전황의 변화 속에서 광진나루터, 새말나루터, 신사리-말죽거리 전투지를 전적지로 선정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 방어전, 탈환전과 직접적인 관련성보다 6·25전쟁의 중요 전적지로 백마고지 3용사상과 콜터 장군 동상, 학도의용군 기념물을 잘 정리했다.

이와 같이 본서는 서울 동부지역의 6·25전쟁을 개관하고, 시간

성과 공간성을 효과적으로 고려하여 동북지역, 중동지역, 남동지역으로 이어지는 동부지역의 6·25전쟁을 길 위에서 독자들에게 읽어 주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주요 구성을 지도로 일목요연하게 알려주고, 장별로 구성된 전적지를 지도에 표시하여 이해를 제고했다.

Ⅲ

군사편찬연구소는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의미있는 연구성과를 국군과 시민을 위한 교양저작으로 알리는 성과확산은 필수적이다. 『전적지 답사 총서』는 군사편찬연구소의 연구성과를 대중화하는 결실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발행의 군사사적 의미에 더하여 군사편찬연구소의 사업목적에 추가하여 제언하고자 하는 몇 가지 제안을 하여 서평을 마감하고자 한다.

첫째, 총서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중장기 기획의 필요성이다. 군사편찬연구소는 본서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군사역사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충족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전적지 답사 총서』 시리즈를 준비하고 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적지 답사라는 관점에서 전쟁의 범위와 전쟁의 역사유산으로 남겨진 답사 대상의 범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적지 답사 총서』 기획의 어려움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전쟁사·군사사 연구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과 달리 성과를 대중화하는 것은 별개의 기획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연구소의 중장기 연구계획에 추가하여 전쟁을 선별하고, 전적지를 식별하고, 이를 답사하여 총서로 출판하는 사업은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지 답사 총서』는 연구성과의 대중화라

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기획이라 할 것이다. 그 출발점으로 현재의 국군에 밀접하게 연관된 6·25전쟁을 선정하고 밀도있게 다룬 점은 높은 평가되지만, 시리즈 차원에서 국군과 국군의 역사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전쟁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반도와 그 주변국으로 확대되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6·25전쟁을 다루었다면, 향후 중기계획 차원에서 서울에서 전국으로, 6·25전쟁에서 주요 군사역사의 전쟁으로, 국내에서 주변국으로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 국군과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6·25전쟁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둘째, 서술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서는 전적지 답사의 가이드(Guide, 안내)집으로 매우 유용하다. 6·25전쟁에 대한 전문 연구원이 깊이 있는 연구성과에서 집필한 본서는 일반적인 안내문 수준의 전적지 설명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기존에 전적지에 세워졌거나 관련 기관이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자료에 비해 본서의 유용성과 충실도는 상당할 것이다.

본서는 전적지 별로 전적지 명칭, 간략한 한 줄의 전적지 정의, 주소, 2~3장의 현장 사진과 역사 사진, 필요시 추가된 요도(전투요도), 배경·전개과정·현재 전적지의 수립과정 등에 대한 집약된 설명 등으로 서술방식을 구성했다. 기존의 답사집에 비해 집약적이고, 높은 내용의 충실도 등이 돋보인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와 비교하여 독자의 관심 충족과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는 바는 편리성과 접근성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전문 연구기관의 산물이란 점을 강조하여 보다 학술적인 체계와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중성과 학술성을 모두 충족하는 서술방식이 적용된 향후 『전적지 답사 총서』를 기대한다.

셋째, 전적지는 시대성과 공간성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라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본서는 6·25전쟁기 서울 동부의 전적지

를 다루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6·25전쟁을 전공한 전문 집필자의 학술적 내공이 충분히 반영된 총서라는 점은 인정되면서, 다소 아쉬운 점은 간략한 시대성, 공간성을 추가하여 서술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필자가 평소 집필자와 함께 군사사의 대중화 방안으로 공감했던 점이 길 위의 군사역사가 가지는 시대성과 공간성이었다. 전근대 전쟁에서 중시되었고, 군사축선의 일환으로 각종 전투가 일어난 공간이 근·현대 전쟁에서 동일하게 주요 군사축선으로 이용된 점을 대중에게 잘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였다. 이런 서울 동부의 주요 전적지가 가지는 시계열적 시대성과 한반도 내지 서울이란 보다 큰 공간개념에서 해당 전적지의 독보적인 공간성을 매우 간략하게라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필자의 이런 아쉬움은 집필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심하고 나름 포함시켰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독자의 입장에서 드는 아쉬움일 것이다. 모든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많은 노력의 결과로 출판물을 내놓았을 때 언제든지 직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에서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면 향후 출판될 총서에 참고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넷째, 전적지 답사는 독자와 시민이 해당 공간을 길밟기하여 그곳에서 있었던 전투와 전쟁의 현장감을 공감하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지휘관 내지 부대 중심의 답사 안내가 가지는 현장감의 설명으로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물론 한정된 지면에 효과적으로 전적지를 설명하기 위해 부대와 지휘관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부정할 수는 없다. 분명 본서는 각 전적지의 전투상황을 매우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 중심의 설명이다 보니 현장감을 실감나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독자와 시민이 전적지를 직접 걸어보며, 국군과 유엔군이 현장에서 어떻게 싸웠는가를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공간성과 연관된 의견이지만, 미아리 고개, 말죽거리, 과천 등 지명을 제시하고 담당 국군 부대가 치열하게 전투했다는 방식의 설명은 사료와 검증자료의 한계로 보다 세밀한 설명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6·25전쟁 당시 미아동 일대라는 전적지에 건물이 대략 어떻게 존재했으며, 부대명뿐만 아니라 몇 명의 국군이 방어선을 구축한 형식이 어떠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공세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전황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구체적인 현장감이 설명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다섯째, 전적지 답사에 매우 유용한 본서를 읽고 추가로 참고할 자료 내지 연구성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다면 본서의 의미가 제고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서는 군사편찬연구소와 집필자의 매우 정치한 기획으로 선별된 전적지가 모두 전쟁사, 군사사에서 의미있는 공간이다. 본서를 통해 답사하고픈 독자의 입장에서 매우 집약적으로 서술된 본서를 통해 확대된 관심을 충족할 수 있는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을 전적지별로 2~3개 정도 제시해 준다면 좋을 듯하다.

최근의 군사사에 흥미와 관심을 가진 시민은 전문 연구자 못지않은 지식과 안목을 가지는 수준이라 보인다. 참고문헌보다 실제 참고되는 사료와 자료를 제시해 준다면 독자의 답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관심을 증폭하여 찾아보는 즐거움도 충족될 것이라 보인다.

본서는 전문 군사사학자가 대중들과 호흡하기 위해 군사편찬연구소의 연구성과와 답사경험을 효과적으로 담아낸 대중화 산물로 저술되었다. 자칫 전문 연구자들이 학술성과에 몰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중과 호흡해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하지만, 그 반응과 성과에 대해서는 시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시간이 답해 줄 것이라 본다.